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2011. 12

목 차

【요약】

I. 2012년 국내외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1
2. 한국경제 전망	2

II.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1.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4
2.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8
3. 해외기업 및 자본의 투자여력	16
4. 대한투자현황	20
5. 정책환경	24
6. 국가별 대한프로젝트 동향	27

III.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및 전략

1. 종합전망	52
2. 우리나라의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54

요 약

□ 동향 및 전망

-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투자 증가 등 위협요인이 있으나, 미국경제의 회복조짐, 미·EU와의 FTA 체결, 엔고와 대지진 여파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신흥자본국의 해외투자 확대 등 기회요인을 활용,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시 '11년과 유사한 수준 달성 전망
-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년 상반기 기준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7,20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심화와 미국 경제회복 부진으로 상승세가 꺾임
-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지난 3년간 연평균 120억 달러의 투자가 신고 되었으며, '11.12.21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한 120.2억 달러(전액 투자실현 시 약 125,000명 고용창출 전망)를 기록하였으나 도착기준으로는 58.3억 달러로 7.4% 증가
 - * '11년 국가별 실적(12.21기준): 일본(21.2억 달러), 미국(18.1억 달러), 독일(14.0억 달러)
 - * '11년 업종별 실적(12.21기준): 금융·보험(16.6억 달러), 화공(15.5억 달러), 전기·전자(14.9억 달러)
 - * 외국인투자 10억원당 약 9.06명 고용창출효과(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방안 연구, 지경부·KOTRA '10.9월)
- **(IK 보유 투자프로젝트 현황)** '11년 11월말 기준 24개국 소재 42개 KOTRA 무역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1천만불 이상)는 170개로 총 프로젝트 규모는 21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2년에 57억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IK실적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

□ 기회요인

- **(미·EU와의 FTA)**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인한 시장확대 효과로 미·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이 개방되는 서비스분야의 투자도 개방 단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한-EU FTA : EU의 대한 직접투자는 연간 30% 증가 전망(IBM 컨설팅)
 - * 한-미 FTA : 10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추가유입 전망(KDI 등)
- **(건실한 국내경제)** 국내경제 성장률은 '11년 3.8%에서 '12년 3.7%로 소폭 하락할 전망이나 세계 주요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 * 설비투자(3.3% 증가), 건설투자(2.9% 증가), 민간소비(3.1% 증가)
 - * '1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호주(4%), 칠레(4%)에 이어 OECD국가 중 3위(OECD, '11.11월)
 - * '12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OECD, '11.11월): 미국(2.0%), 일본(2.0%), 프랑스(0.3%), 독일(0.6%), 중국(8.5%), 인도(7.5%), 러시아(4.1%), 브라질(3.2%)
- **(다국적기업의 투자여력 증가)**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UNCTAD 해외자산 상위 100대 비금융기업의 현금성 자산: ('08년) 7,880억 달러 → ('09년) 9,440억 달러 → ('10년) 1조440억 달러
- **(신흥자본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 최근 들어 중국, 러시아 등 신흥자본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 * (중국) '10년 68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 (러시아) '10년 517억 달러로 18.4% 증가
 - * 개도국의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비중: ('06년) 17.8% → ('08년) 19.3% → ('10년) 29.3%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대지진, 엔고 등으로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동안 축적한 풍부한 자금력과 엔고를 바탕으로 해외 M&A를 확대하고 있어, 미·EU와의 FTA 체결효과와 연계 시 한국으로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 '11년 일본의 해외 M&A규모는 797억 달러로 미국, 영국에 이어 3위

□ 위협요인

- (유럽 재정위기·글로벌 경기침체) EU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투자도 위축될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체제 불안정이 심화되는 경우 외국인투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기지이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생산기지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부품·소재분야의 외국인투자도 타격을 받을 전망
 - * '11년 1월~9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36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 (삼성전자) 반도체 팹, LCD 모듈 중국투자, (현대자동차) '10년 현대차 제3공장 중국 건설 중, '12년 기아차 제3공장 건설 예정

□ '12년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 (외국인투자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외환보유고 확충 중심에서 고용 창출, 고도기술 확보, 지역 개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심으로의 외국인투자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간재, 부품·소재분야와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보험, 물류·운송, 관광레저 등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집중
 -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센서,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 융합, 녹색기술 분야 고도기술 투자유치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
 - 글로벌 기업의 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 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해외시장 마케팅 등 다중협력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 **(미·EU와의 FTA 활용)** 미국, EU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FTA 수혜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전기전자, 화학 등 제조분야와 새롭게 개방되는 금융, 법률, 통신, 비즈니스서비스 등 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시장확대 효과를 활용하여 일본, 중국 등 주변국 투자유치를 대폭 강화
 - 미·EU 기업의 아시아 거점 설치를 위한 투자유치
 - 미·EU 기업의 서비스분야(금융, 법률, 비즈니스서비스 등) 투자유치
 - FTA의 관세 인하·철폐를 활용한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활용한 투자유치)** 화학, 자동차, 정밀기계, 전기전자, 디스플레이(OLED, LED) 등 제조업 분야의 부품소재기업 유치, 금융업 유치 및 일본의 M&A 활용 등
- **(전통 투자국 강화 및 신흥자본국 다각화)**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 대상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 중동, 인도 등 신흥자본국으로 투자유치처 다각화
- **(M&A 투자유치 확대)** '12년에는 전세계 M&A 및 특히 아시아지역으로의 M&A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 사모펀드, 국부펀드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M&A를 활용한 자본 유치 확대 추진

I . 2012년 국내외경제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들의 부작용으로 '11년 하반기부터 적신호가 표면화되기 시작. 선진국들은 재정지출의 후유증으로 재정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신흥국들은 유동성유입으로 물가상승이 초래되어 금융긴축을 실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9.21)
- (성장전망)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11년 4.0%, '12년에는 4.0%로 '10년 5.1%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 ('11.9월) OECD는 세계경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11년 성장률은 3.8%, '12년 성장률은 3.4%로 당초 전망보다 각각 0.4%p, 1.2%p 하향조정 ('11.11.28)
- (재정문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지속·확산우려, 미국의 재정건전화 관련 정치적 논란 등에 따라 경기둔화 심화될 우려
- (국제유가) 두바이 유가는 '11년 배럴당 105달러에서 '12년 90달러로 하락 전망. '12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 수요증가도 줄어들고 공급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해소로 국제유가 상승 여력 줄어들
- (금리전망) 선진국 단기금리는 상당기간 동결, 장기금리는 완만한 상승 전망. 신흥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 '12년 세계경제 위축, 선진국의 해외상품 수요 감소 예상으로 세계교역량은 '11년 7.5%에서 '12년 5.8%로 하락할 전망 (IMF, '11.9월)

2. 한국경제 전망*

* 기획재정부, 2011.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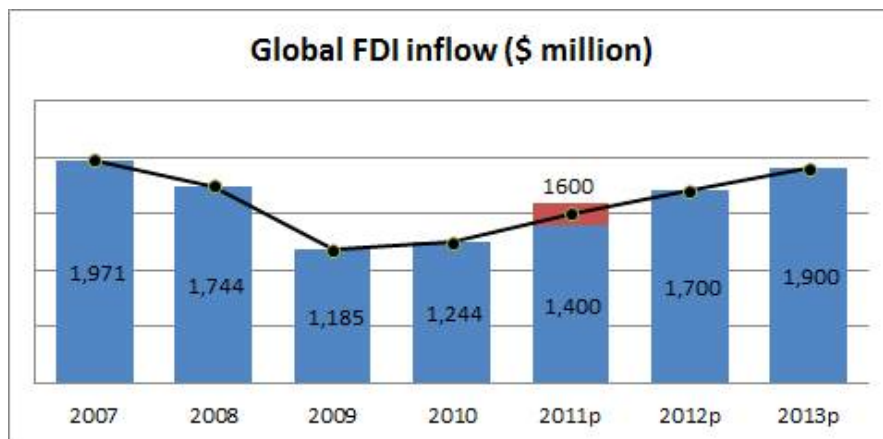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1년 3.8%에서 '12년에는 3.7%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동력인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강세 기조 등으로 인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보조동력인 내수는 수출둔화를 보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 예비동력인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곤란한 상황. (삼성경제연구소) 다만 FTA 체결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효과 예상
- (성장전망)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대비 1%를 하회하는 성장률 예상, 하반기에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
 - 대외여건 악화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되는 반면, 내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증가
- (민간소비) 민간소비는 물가상승세 둔화 등으로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연간 3.1% 증가 예상
 - 주택가격·주가 등 자산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가계대출 관리 강화,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소비여력을 제약할 가능성
- (설비투자) 수출증가세 둔화,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율이 3.3%로 크게 낮아질 전망
 -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점차 하락하고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여건 악화도 설비투자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다만, 한-EU FTA, 한-미 FTA의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수요 증가 가능성 (한-미 FTA 발효시 '12년 설비투자 최대 0.4% 증가 전망, KDI)

- **(건설투자)** SOC 예산 감소 등으로 토목건설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주택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 증가
 - 주택투자가 회복되고 비거주용 건축투자도 완만하게 증가,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건설기업 심리위축 등은 제약요인
- **(고용)** 경기회복세 둔화, 기저효과, 취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려 취업자는 28만명 증가
 - 고용률은 금년보다 0.1%p 개선된 59.1%, 실업률은 금년과 동일한 3.5% 예상
- **(소비자물가)**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수요압력도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3.2% 상승
 - 공급측면에서는 농산물 수급안정,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둔화 등에 따라 물가압력은 완화
 - 높은 수준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당분간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경기회복 둔화로 수요압력이 점차 완화
-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올해보다 흑자폭이 줄어 연간 160억불 흑자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연간 7.4% 증가. 글로벌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
 - 수입은 투자수요 부진 등으로 연간 8.4% 증가, 전체 수입 중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이 40%에 달하여 수출 둔화 시 수입수요도 함께 둔화
 - 경상수지 여건은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서비스수지 등은 적자폭이 확대
- **(금리)** '12년 시장금리는 '11년(4.5%)보다 소폭 하락한 4.4%로 전망
- **(환율)** 환율은 '11년 1,100원에서 '12년 1,060원으로 소폭 하락 전망.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원화 저평가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하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으로 원화 가치는 소폭 강세에 그칠 전망

II.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여건

1.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2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 규모는 1.7조 달러로 '11년 1.4~1.6조 달러(예상)보다 늘어날 전망 (UNCTAD, 7월)
-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금융위기 이후 '09년에 1.1조 달러(최근 5년 중 최저점)를 지나 '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13년에는 1.9조 달러로 예상.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는 예년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올 하반기 들어 유럽의 재정위기가 촉발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3분기의 국경간 M&A 및 그린필드 투자 모두 2분기 대비 줄어드는 등 '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이 당초에 비해 밝지 않음 (UNCTAD, 10월)



- 다국적기업들의 기록적인 현금자산 보유, 기업 및 산업의 개편, 주식 가치의 상승, 각국 정부의 기업지분 처분 등의 환경이 새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다만, 다국적기업들은 최근 금융위기 등의 경험에 비추어 투자계획에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UNCTAD (2011.7),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 지역별 및 주요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 '11년 상반기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72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했지만 '10년 하반기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침
- 선진국의 경우 '11년 상반기 유입액은 35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4% 증가했지만 '10년 하반기보다 4% 감소하여 '11년 하반기에도 감소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특히, 미국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감소가 두드러짐
- 신흥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서아시아를 제외하고 '11년 상반기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도 증가하여 견고한 성장세

<지역별 및 주요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10년~'11년 상반기>

(단위 : 십억 달러, * 예상)

유입지역/국가	'10년 상반기	'10년 하반기	'10년 합계	'11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	전분기 대비(%)
전세계	546	706.7	1,252.7	720.7 (31.9%)	2.0%
선진국	247.8	367.3	615.1	353.1 (42.4%)	-3.9%
유럽	127.0	197.3	324.3	227.3 (78.9%)	15.2%
미국	83.2	145.1	228.3	74.3 (-10.6%)	-48.8%
일본	0.3	-1.7	-1.4	-1.6	-
신흥국	263.9	304.5	568.4	326.5 (23.07%)	7.3%
아프리카	26.7	28.9	55.6	30.2 (13.1%)	4.5%
남미	71.5	89.6	161.1	94.2 (31.7%)	5.1%
서아시아	20.6	31.0	51.6	20.8 (0.9%)	-32.9%
동/남 아시아	144.3	154.1	298.4	184.2 (27.6%)	19.5%
동남유럽 및 CIS	34.4	34.9	69.3	41.1 (19.4%)	17.6%

□ 신흥국가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증가세

- 신흥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유입국 및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국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 생산 및 소비가 점차 신흥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
 - '10년 신흥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처음으로 전체 외국인투자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11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됨
 - 특히 신흥국 중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가 활발한데 신흥국으로의 M&A 증가가 동 지역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의 주요 동인
 - '11년 상반기의 경우 중국과 인도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20%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유입이 늘어나고 있음
- 다국적기업들은 효율적인 사업과 시장추구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및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흥국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음

□ 금융업을 포함한 서비스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국경간 M&A는 많이 회복했으나 '07년에 비하면 아직도 1/3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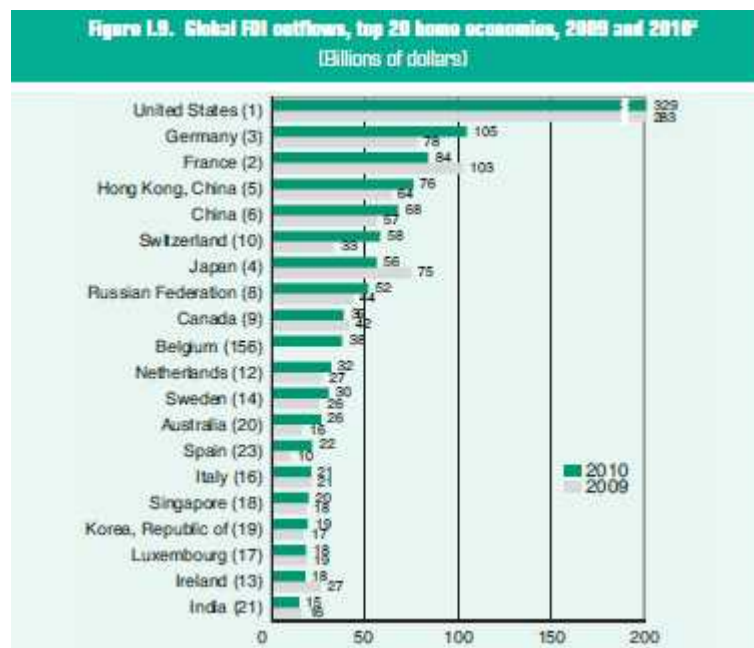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 첨단기술 및 제조업 분야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 금융의 경우 선진국에서의 구조조정, 정부의 출구전략의 성공에 따라 향후 금융분야에서의 투자는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
- 그린필드 투자는 '11년 5월까지 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3분기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
 - 금융위기 이후 그린필드 투자금액이 국경간 M&A 투자금액보다 월등히 많아지는 추세임

- 특히 신흥국으로의 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를 이루며 전세계 그린필드 투자의 2/3, M&A 투자의 1/4이 신흥국에서 이루어짐
- 신흥국으로의 국경간 M&A는 매력적인 기업가격, 기업의 수익성 증가 및 탄탄한 경제 펀더멘탈 등의 요인에 힘입어 최근 두 배로 증가

2.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 UNCTAD에서 집계한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 주요국가 20개국을 보면, 주로 선진국들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기준으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11년 상반기까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하여 증가하는 추세로 금융위기 이후 급감하였던 해외투자도 '09년 저점을 지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

<'09년 및 '10년 상위 20개 해외투자국가>



자료 : UNCTAD

- 선진국발 해외투자는 상당부분이 신흥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선진국의 해외투자동향은 신흥국들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을 전망하는데 주요한 변수임
- '11년 2분기 또는 3분기까지의 주요국가의 해외투자동향을 보면, 13개국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독일 등이 하향세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는 전세계 해외직접투자가 회복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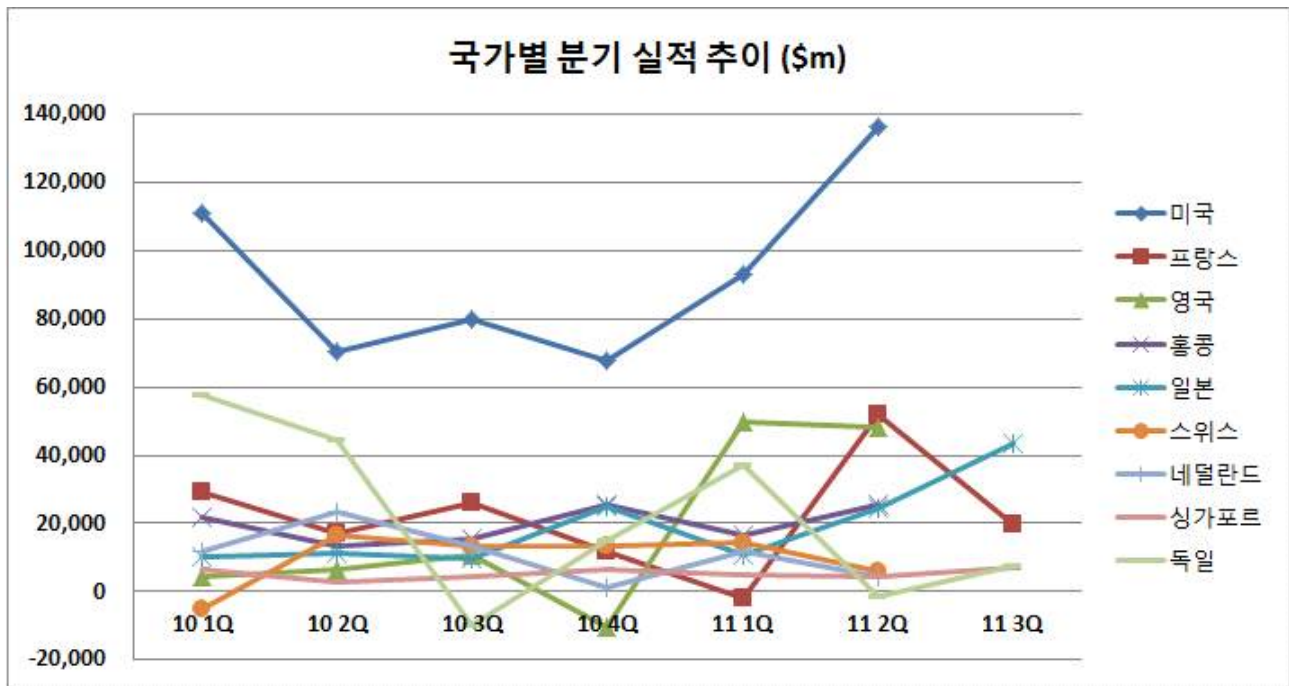
<주요 20개국의 해외투자 동향>

구 분	국 가
해외투자 상승세	미국, 영국, 홍콩, 중국, 스위스, 일본, 러시아, 캐나다,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해외투자 하향세	독일, 네덜란드, 호주, 인도
유사수준	프랑스, 싱가포르

* 해외투자 동향은 각국의 정부 및 중앙은행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입수가 가능한 최근 분기까지의 해외투자액을 기초로 전년 동기대비로 비교함(아일랜드는 해외투자 순유입, 룩셈부르크는 '09년 자료가 최근자료로 제외함)

- 그러나 재정위기, 국가부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직접투자(FDI Outflows)는 '11년 상반기까지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추세이나 '11년 하반기와 '12년에는 위험요인이 있어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
- 신흥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는 '10년 3880억 달러 규모로 증가세에 있으며, 특히 신흥국 중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해외투자가 '10년 23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새로운 해외투자 원천국으로 부상, 향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신흥국 소재 TNC들은 주로 다른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는 경향. 이들의 해외투자 건수의 70%가 주변 신흥국에 투자됨
- 특히 홍콩과 중국으로부터의 해외투자가 최근 성장세. 중국계 기업들은 다양한 지역과 산업분야에서 해외기업 및 자산 인수에 적극적임
- 다국적기업들이 선호하는 해외직접투자 국가순위는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이며 최근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만 등이 선호국가로 떠오르고 남미에서는 페루와 칠레 등이 투자대상국으로 선호됨. 한국은 20대 순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외투자의 주요국가 및 대한 투자 주요국 중 10개국의 최근 분기까지의 해외투자동향을 그래프로 살펴보고 각 국가별 동향을 알아봄



* 적용환율 : '10년(연간기준환율), '11년(3분기 환율 적용)
중국의 경우 분기별 해외직접투자를 발표하지 않아 미포함

분기 국가	2010년 (백만 달러)					2011년 (백만 달러)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미국	111,041	70,515	79,874	67,475	328,905	93,090	136,147	-
독일	57,474	44,738	-9,997	14,956	107,171	37,303	-1,258	7,841
프랑스	29,385	17,219	25,874	11,803	84,281	-2,038	51,908	19,482
홍콩	21,982	13,455	15,337	25,307	76,082	16,468	25,711	
중국	-	-	-	-	68,810	-	-	-
스위스	-4,913	16,667	13,203	13,492	38,449	14,348	6,209	-
일본	10,157	11,213	9,810	25,116	56,295	10,491	24,655	43,308
네덜란드	11,834	23,414	13,421	1,420	50,089	12,025	4,535	-
싱가포르	6,450	2,613	4,334	6,355	19,753	5,157	4,519	7,020
영국	4,446	6,326	10,736	-10,479	11,028	49,983	48,439	-

○ 미국

- 미국의 '10년 해외직접투자액은 3289억 달러로 세계 제1의 해외투자 국가이며 전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24.7%를 차지하여 명실공히 타 국가에 가장 많은 직접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원천국
- 미국은 '10년 가장 많은 수의 그린필드형 FDI프로젝트의 출처국으로 '09년대비 4%증가한 2,800여개의 해외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는 세계 총FDI 프로젝트 중 25%를 차지
- 미국은 제조업,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했고, 금융, 부동산, 건축,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감소
- '11년 2분기까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진국 재정위기, 미국의 경제회복 부진 등으로 3분기 이후에는 다소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독일

- 독일의 해외투자는 '07년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10년 상반기 이후 독일 경기의 호조로 인해 '10년 한해는 전년 대비 40.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였으나 '11년 2분기 집계 결과, FDI 유출은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른 투자 수요 둔화로 큰 폭의 감소세
- '12년에도 남동유럽에서 발발한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독일의 해외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

○ 프랑스

- 프랑스의 '10년 해외투자는 842억 달러로 '09년에 비해 18.2% 감소
- 프랑스의 주요 해외투자 업종은 금융, 유통, 전기·가스, 보험 등임
- 프랑스는 최근 중동뿐 아니라 북아메리카지역 등지의 석유개발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재생가능 전력생산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홍콩

- 홍콩경제가 '08년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호황을 누림에 따라 최근 홍콩의 해외투자도 활기를 띄고 있었으나 다시 찾아온 미국·유럽발 경제위기로 투자자들이 해외투자에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부각되는 분위기
- 홍콩의 FDI 유출은 조세피난처(버진아일랜드 등)와 중국에 집중되는 것이 큰 특징. 조세피난처에로의 투자 증가 추세는 세계기업의 자금관리센터로서의 홍콩기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홍콩통계청에 의하면 직접투자 유출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은 투자, 부동산,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로 전체의 72%를 차지('09년 기준)

○ 중국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10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688.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 M&A를 통해 전세계로 진출하고 있음. 올해 1~11월 해외 M&A는 106건으로 거래금액은 234억 달러로 에너지·광산 분야에 집중되었음
- 단, 글로벌 금융 위기 및 중국내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해외투자 성장세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스위스

- '10년 기준 스위스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소폭 (10.3%) 상승하였으나 '06년 이후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11년도에도 보합 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전체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EU와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신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는 '08년 큰 폭의 감소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06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스위스의 해외투자 유출금액은 제조업(건설업 포함) 36%, 서비스업(금융업 포함) 64%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중 해외투자 비중은 화학, 전자/광학/기계 등 정밀 제조업, 기계제조업 순이며, 서비스업에서는 유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금융업은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

- '10년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23.3%줄어드는 572억 달러로 2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나 '11년 3분기까지의 해외직접투자는 78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
- '11년은 대지진, 원전피해, 전력문제, 엔고 등 외부로의 진출압력이 거세지면서 (Push 효과) 이미 해외진출을 전개했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도 상당히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
- 일본기업들은 '11년 엔고와 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10년 10위에서 글로벌 M&A 3위로 뛰어올랐으며, 내년에는 재정위기 여파로 유럽 기업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일본계 기업들의 유럽기업을 발빠르게 사들일 것으로 전망
- 일본 제조업체들의 탈일본 경향도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제조업체 97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외사업을 강화·확대한다'는 응답이 지난해보다 4.4%포인트 상승한 87.2%를 기록
- 동 설문에서 업종별로 보면 해외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화학업종이 92.1%로 가장 높았고, 자동차(91.6%)와 정밀기계(88.6%)가 그 뒤를 이었음. 생산기지 이전 희망 국가는 중국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 지역별로 보면, 일본의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경우 3분기까지 86억 달러가 투자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 아는 일본과 FTA를 체결한 저비용국가로서 생산시설의 이전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이 시장들은 자체 시장수요의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향후 일본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되는 지역임
- 금융분야에서는 일본계기업의 해외진출이 늘면서 고객사들과의 동반 진출을 기획하는 대형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음
 - 소재업계는 완전한 글로벌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황으로 경쟁력 분야로의 업종전환 및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임
 - 자동차업계에서도 일본의 엔고, 수요부진, 노동관계의 경직화 등 여러 원인으로 완성차 메이커의 해외 생산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1·2차 벤더들도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할 것으로 보임

○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해외투자는 주로 EU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비EU권 국가는 미국, 일본이 대부분을 차지
- 네덜란드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우회투자로서 그 중 70% 이상의 자금이 다시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
- 네덜란드는 산업별 해외투자를 발표하지 않아 산업별 투자동향을 알기 어려움

○ 싱가포르

- '09년 싱가포르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184억 달러, '10년은 197억 달러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크게 하락했던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수준으로 회복
- '11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금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증가 하였으며, '11년 3분기까지의 직접투자 금액은 164억 달러로 '11년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로는 아시아가 주요 투자처로 '09년 연말 스톡기준 총 해외 직접투자금액의 52.8%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에 이어 투지진출이 활발한 지역으로는 유럽(16.5%), 중남미 및 케리비안 지역(15.1%), 호주 및 뉴질랜드(6.7%), 북아메리카(3.4%)등의 순임
- 산업별로 보면 싱가포르의 대외 직접투자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업이 4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23.4%), 부동산업(5.6%)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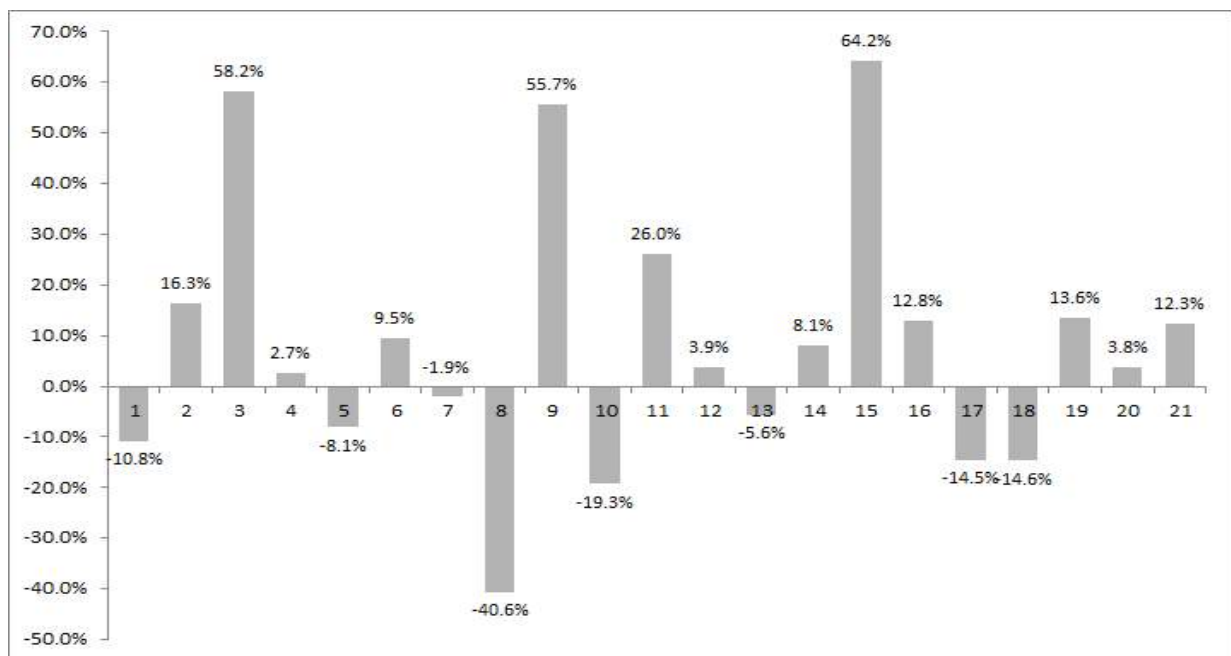
- 영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09년 285억 파운드, '10년 71억 파운드를 기록하였으나 '11년에는 1분기 310억 파운드, 2분기 300억 파운드를 기록 해외투자의 경우 금융위기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주로 영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및 지분투자, 이익잉여금의 재투자의 증가에 기인
-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해외투자의 경우 현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해외기업 및 자본의 투자여력

□ 비금융권 다국적기업 (Non-financial TNCs)

- UNCTAD가 집계한 세계 100대 비금융권 다국적기업의 '09년 및 '10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는 '09년 9440억 달러에서 '10년 1조440억 달러로 10.6% 증가하여 투자여력은 늘어나는 추세* 특히 '10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여유자금이 늘어남
- 업종별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석유·정유·유통, 화학, 식품·음료·담배 등의 순서로 전년 대비 많은 증가율을 보여 향후 이들 업종에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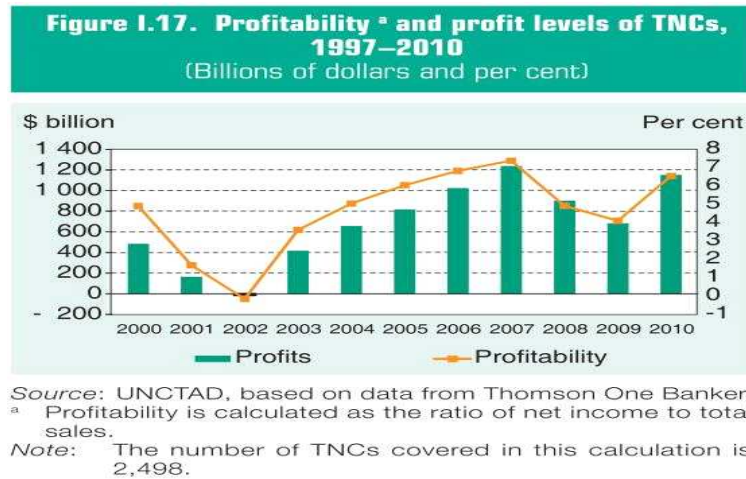
<업종별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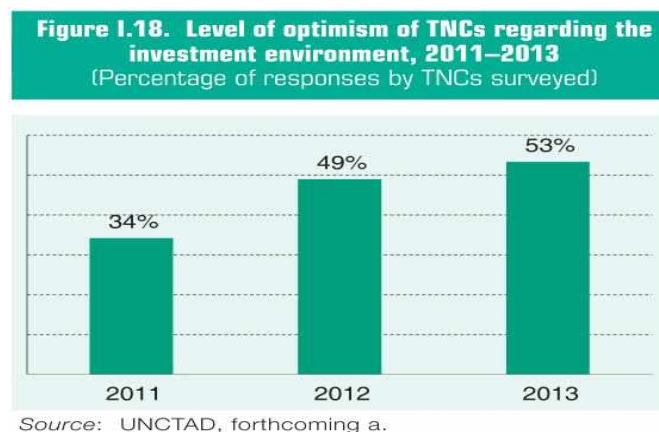
1: 항공기 2: 비즈니스서비스 3: 화학 4: 건축및부동산 5: 기타 6: 전기및전자 7: 가스및수도 8: 엔지니어링
9: 식품·음료·담배 10: 금속·금속제품 11: 광산·채굴 12: 자동차 13: 비금속광물제품 14: 기타소비자서비스
15: 석유·정유·유통 16: 제약 17: 소매 18: 통신 19: 운송및저장 20: 유틸리티 21: 도매

* 다국적기업의 해외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김. 이는 해외투자를 많이 한 기업 순서로 이들 기업의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향후 직접투자의 동향을 추측할 수 있음.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 합계는 이들 기업이 향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기타 다른 변수도 있지만 본 조사에서는 두 가지의 합계로 투자여력을 평가함

- 다국적기업들의 수익 및 수익성 모두 '10년에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11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다국적기업들의 투자여력은 긍정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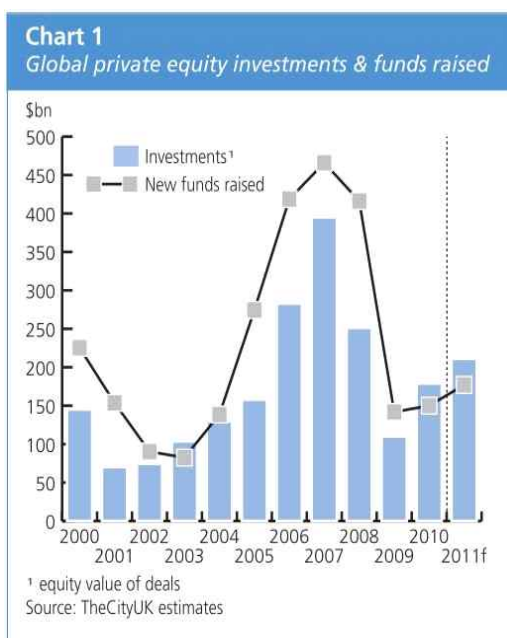
- 다국적기업들은 '11년~'13년 세계투자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긍정적 및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1년 34%, '12년 49%, '13년 53%로 향후 이들 기업들로부터의 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모펀드 (Private-equity Funds)

- 글로벌 사모펀드 규모는 '10년 18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나 '07년 최고점에 비하면 55% 수준임. '11년에는 2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사모펀드에 의한 투자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TheCityUK, 2011.8)
- 사모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0년에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나 '07년의 최고점에 비하면 70% 수준으로 본격적 회복은 아님
 - 사모펀드를 통한 국경간 M&A는 '09년 저점을 지나 '10년에는 12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11년 5월까지의 추세도 점차 증가세에 있음
 - 사모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거시경제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고, 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수익처를 찾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사모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신흥국 및 체제전환국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글로벌 사모펀드 규모>



< 사모펀드의 국경간 M&A 규모>

년도	거래건수		금액	
	건수	비중(%)	십억달러	비중(%)
2006	1,698	18	271	24
2007	1,917	18	457	27
2008	1,785	18	322	25
2009	1,993	25	107	19
2010	2,050	22	122	17
2011.5	591	17	9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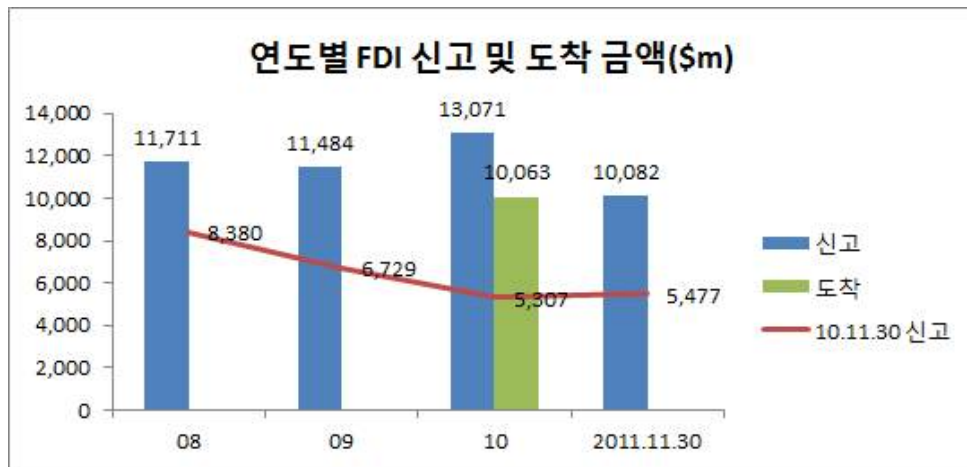
□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s)

- '10년 국부펀드 전체 규모는 4조 2천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12년 까지 5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기관은 전망 (TheCityUK)
 - 주목할 점은 최근 국부펀드가 국경간 거래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선진국 금융자산에 국한되어 있던 투자대상을 신흥국의 부동산, 인프라, 상품투자, 사모펀드 등의 실물자산으로 확대하는 등 투자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
 - 신흥국가가 보유한 국부펀드가 다시 신흥국으로 투자되는 '신흥경제국↔신흥경제국' 패턴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부펀드를 통해 투자되는 형태 중 해외직접투자(FDI)형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펀드 규모가 늘어나고 해외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직접투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10년 국부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00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09년 265억 달러에 비해 38% 감소
 - '10년 국부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은 걸프 지역의 국부펀드로부터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09년의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10년에 투자를 주춤하게 만들었기 때문
- '11년 국부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0년부터 국부펀드의 자본 원천 중 하나인 원자재 가격이 회복하기 시작하여 국부펀드의 투자여력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에 관심이 많은 특정 국부펀드의 펀드규모도 증가하여 국부펀드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에 청신호

4. 대한투자현황

□ 투자현황

- (신고현황) '11년 11월 30일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는 100.8억 달러로 전년 동기(100.6억 달러)와 유사한 수준
 -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120억 달러가 투자신고 되고 있음
 - 신고금액 중 '10년 도착금액은 53억 달러, '11년은 54억불(11.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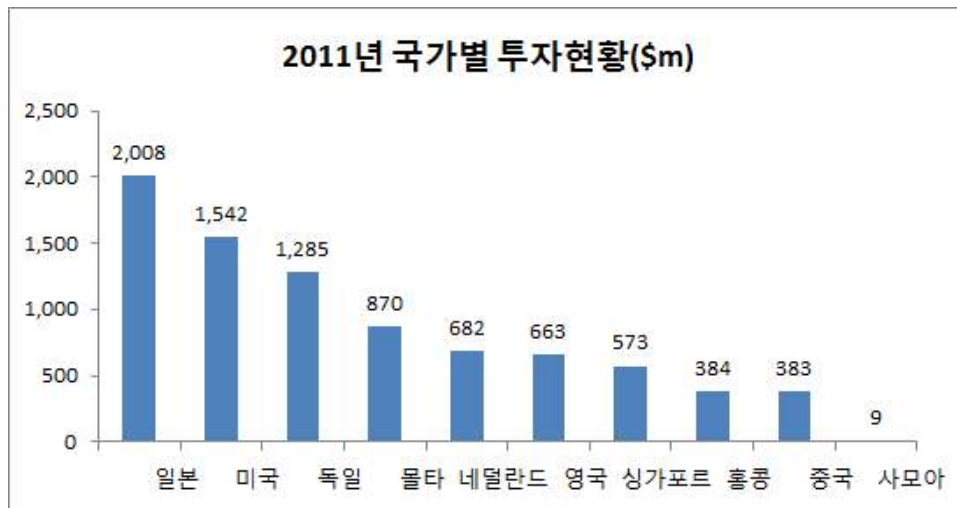


자료 : INSC(KOTRA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 (국가별현황) '08년부터 '11년 11월 30일까지 누적 투자신고 상위 10개국의 순위를 보면, 1위 투자국이 일본으로 그 뒤를 이어 미국, 네덜란드, 영국, 몰타, 독일 등임
 - 조세회피지역인 몰타, 사모아 및 우회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제외하면 주요 대한투자국은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이며, 최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국가별 대한투자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의 투자는 다소 주춤한 상황

* 투자 상승세 : 일본, 독일, 홍콩, 중국

* 투자 하향세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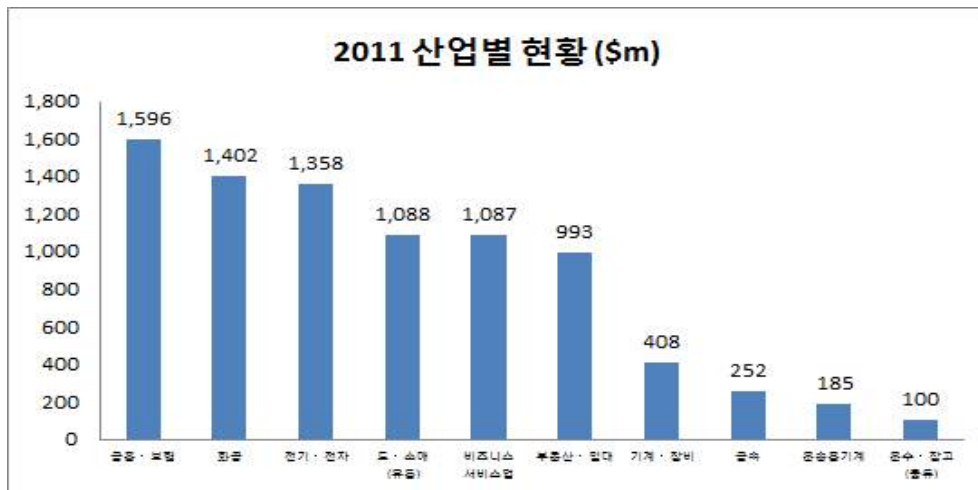


<'08년~'11년 대한투자 상위 10개국 투자신고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08	'09	'10	'11.11.30	08~11.11.30
순위	국가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누적 신고금액
1	일본	1,423	1,934	2,082	2,008	7,449,305
2	미국	1,328	1,486	1,974	1,542	6,331,826
3	네덜란드	1,228	1,897	1,184	682	4,993,328
4	영국	1,232	1,952	649	663	4,498,542
5	몰타	1,921	7	83	870	2,883,411
6	독일	685	569	268	1,285	2,808,904
7	싱가포르	915	436	772	573	2,698,506
8	사모아	3	3	2,023	9	2,040,049
9	홍콩	242	773	92	384	1,492,238
10	중국	335	159	414	383	1,292,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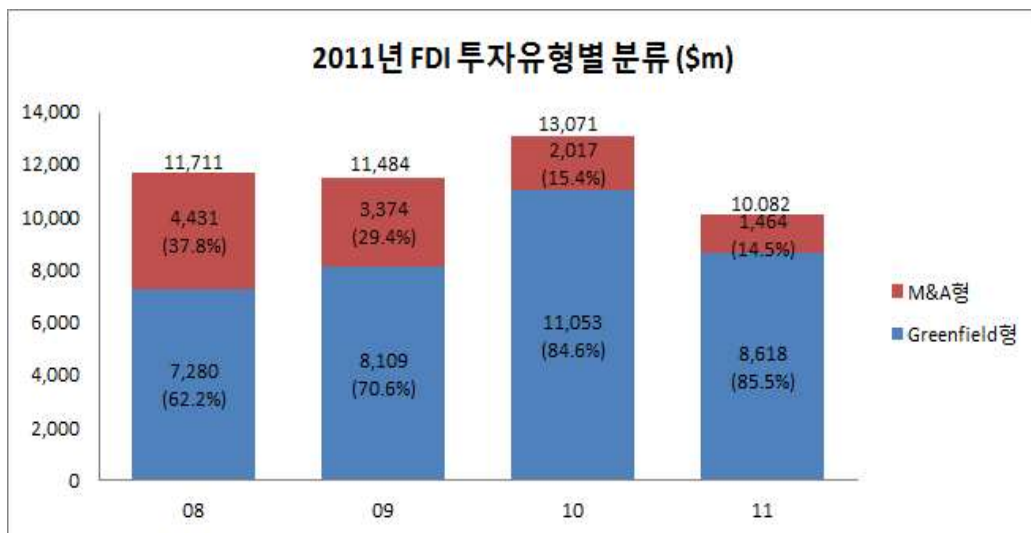
- (업종별현황) '11년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산업분야를 보면, 금융·보험업이 15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뒤를 이어 화공, 전기·전자, 도·소매(유통), 비즈니스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기계·장비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이루어짐. '11년 현황은 지난 4년간의 누적금액과도 유사한 추세를 보임



<'08년~'11년 대한투자 상위 10개 업종 투자신고 현황>

순위	연도	'08	'09	'10	'11.11.30	'08~'11.11.30
	업종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신고금액	누적 신고금액
1	금융·보험	4,607,785	1,251,582	959,960	1,596	8,415,943
2	화공	572,033	203,749	927,037	1,402	5,789,465
3	전기·전자	1,057,751	1,797,896	1,561,336	1,358	5,775,764
4	도·소매(유통)	938,999	2,203,692	964,599	1,088	5,195,621
5	비즈니스 서비스업	1,143,053	1,947,337	951,734	1,087	5,129,212
6	부동산·임대	689,413	1,419,790	2,686,530	993	3,640,492
7	기계·장비	241,653	177,833	407,290	408	3,104,984
8	금속	190,089	403,330	151,526	252	1,266,754
9	운송용기계	345,845	625,460	2,483,386	185	1,235,507
10	운수·창고(물류)	703,753	265,167	197,003	100	997,289

- (투자유형별)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그린필드형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M&A형 투자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음. 지난 4년간의 평균을 보면 그린필드형 투자가 75%, M&A형 투자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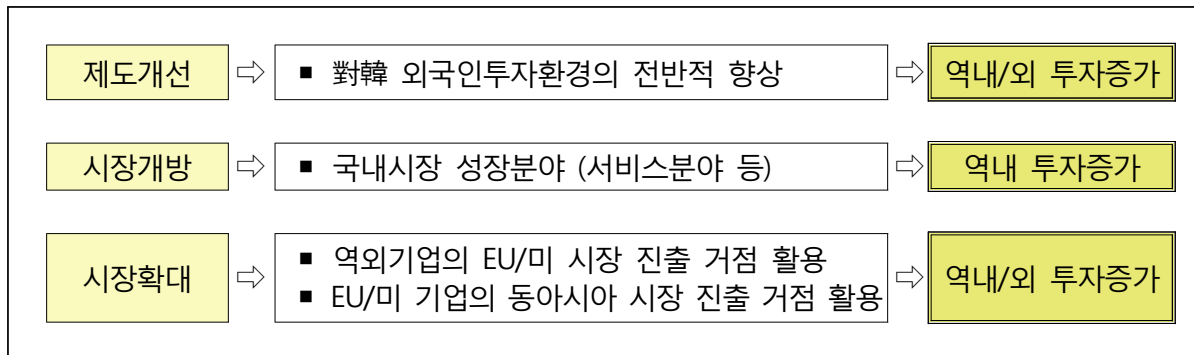


5. 정책환경

□ FTA 네트워크의 효과

- 거대경제권인 유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국내 산업구조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개선, 법·제도 선진화, 투자자 보호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로 작용할 것
 -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시장이 성장하여 이에 따른 역내 투자 증가
 - 관세인하·철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추가 투자 유입
 - 시장확대에 따라 미·EU 시장 진출 거점이나 미·EU 기업들의 동아시아 시장 거점 활용 등의 메커니즘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
 - FTA 효과를 누리기 위해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공장 유턴현상이 예상되며, 외국기업들도 국내 생산기지를 확대하여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로 제약업, 기계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서 투자가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EU·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관세장벽 소멸로 투자유인이 줄어들 수 있으며, 소비재분야의 경우 오히려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음
- 주요 투자형태로는 ① FTA의 관세 인하·철폐를 활용하기 위한 제3국(중국, 일본 등) 기업의 수출교두보나 생산기지 구축, ② EU·미국 기업의 아시아 거점 설치를 위한 투자, ③ EU·미국 기업의 서비스 분야(법률, 금융, 방송, 통신, 문화 등) 투자 등의 형태가 활성화될 전망

<참고> FTA를 통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메커니즘



자료 :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KOTRA, 2011.1)

- FTA체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증가효과는 한-EU FTA의 경우 '11. 7. 1일에 발효되었고 한-미 FTA의 경우는 아직 미발효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언급하기에는 이르지만 EU 기업들의 투자는 '11 들어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는 통상 FTA를 체결한 후 상대국에 대한 투자가 평균 21%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 한-EU FTA : EU의 대한 직접투자는 연간 30% 증가 전망(IBM 컨설팅)
- * 한-미 FTA : 향후 10년간 연평균 23~32억 달러의 추가유입 전망(KDI 등)

□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내 조세감면대상 확대 예정
 - 현행 관광·물류·R&D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을 향후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을 추가 예정
 - 투자업종 및 최근 산업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투자유인을 제공
- 한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보다 질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반적인 인센티브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임
 - 유치규모와 더불어 실질적 기여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기준 등 체계를 개선

- 고도기술유치·고용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선별적인 인센티브 지원 체계로의 개편
- 이 외에 전반적인 법체계도 정비 예정

□ 주변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진입장벽 완화

-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점차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추세로 신흥국들간의 외국인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인도 정부는 올해 가장 큰 경제개혁안인 소매유통업 개방안을 입법화할 예정. 월마트, 테스코 등의 멀티브랜드 소매업은 외국인 지분 소유가 51%까지 가능해지고, 스타벅스, ZARA와 같은 단일 브랜드 유통기업에서는 외국인 지분 소유가 종전 51%에서 100% 까지 전격 허용됨

6. 국가별 대한 투자프로젝트 동향*

* 24개국 42개 해외무역관의 대한 투자프로젝트 조사결과

□ 프로젝트 총괄 분석

-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KOTRA 24개국 42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11년 11월 기준 관리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를 조사한 결과, 총 170개 프로젝트(10백만 달러 이상 주요 프로젝트만 집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의 총 규모는 214억 달러, '12년에 투자예상금액은 57억 달러로 집계

<KOTRA 해외무역관 관리 주요 투자프로젝트 현황>

지역	프로젝트 수	총 프로젝트 규모 (백만 달러)	'12년 투자예상금액 (백만 달러)
북미	59개	10,586	1,298
유럽	50개	3,678	2,074
일본	19개	1,539	859
중국·홍콩	15개	3,410	610
기타 아시아·대양주	25개	1,895	512
러시아·중동	2개	360	355
합 계	170개	21,468	5,708

- '10년 말 기준 IK가 보유하고 있는 S등급 및 A등급 프로젝트는 총 308개, 프로젝트 규모는 343억 달러였으나, '11년 3분기 말 현재 S·A등급 프로젝트는 총 196개, 규모는 222억 달러로 개수기준 36% 감소, 금액기준으로는 35% 감소
- '10년 IK의 투자신고 기여가 78억 달러, '11년 83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12년의 경우 IK의 투자신고 기여분은 약 52억 달러가 될 전망
- * '10년 총 프로젝트 중 36억 달러가 당해연도에 투자신고
'11년 총 프로젝트 중 28억 달러가 당해연도에 투자신고('11.12.16일 현재)

□ 미주

1) 미국

○ 대한투자동향

- '10년 미국 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5백억불로 전년 대비 200%가까이 증가한데 비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중 '08년 14%, '09년 19%에 비해 크게 감소한 4%에 머무름. 하지만 '11년 상반기 대한 투자 비중은 7.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86%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 기기생산, 유통, 도매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거나 제자리에 머무는 추세지만 화학, 과학, 기술, 전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 한미 FTA 비준으로 향후 미국기업의 대한투자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뉴욕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D사	반도체장비 공장설립	10	5
S사	쇼핑아웃렛	30	30
B사	전기차인프라설비	25	25
C사	전자기기 생산설비	50	50
V사	MOVCD장비 생산설비	20	20
A사	헤드헌팅 및 컨설팅	20	20
	합계	155	150

(시카고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J사	자동차용 배터리생산업체 인수	30	10
I사	국내 부품생산업체 인수	50	30
K사	국내 도시개발 투자	100	10
P사	국내 법인재정비 및 사업확장	10	5
M사	Poly Silicon 공장 설립	400	200
C사	R&D Expansion	18	9
N사	수처리 회사 인수	18	18
N사	Warehouse 설립	20	10
S사	JV LCD R&D Development	20	10
합 계		666	302

(디트로이트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P사	공장증설 프로젝트	30	25
G사	시험시설 건립	100	-
T사	복합쇼핑몰 건립	300	100
P사	GAPS	30	30
D사	배터리공장 건립	100	50
합 계		560	205

(실리콘밸리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L사	국내 소셜커머스 기업 지분인수	40	5
K사	부산/인천 부동산 투자개발	70	30
C사	U-city 네트워킹 솔루션 최첨단 IT 도시 설립	50	30
L사	국내 반도체 장비 JV 설립	30	20
M사	반도체 장비 공장 설립	10	5
N사	노키아 스마트랩 국내 설립	50	20
B사	국내 유망 IT벤처기업 투자	10	3
D사	우수벤처기업 지분인수	10	3
	합 계	270	141

(로스앤젤레스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A사	국내기업 지분투자	10	10
W사	호텔/부동산 투자	50	-
L사	프로젝트 투자	6,000	-
F사	미디어 분야 투자	45	10
K사	영화 관련 투자	45	7
I사	합작법인 설립	30	5
	합 계	6,180	32

(워싱턴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C사	배터리 분리막 제조시설 증설	200	30
H사	자동차부품사업장 증설	30	30
R사	국내기업 지분투자	20	20
A사	재생에너지분야 투자	100	15
	합 계	350	95

(달라스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 (백만불)
A사	LED용 고순도 전자재료 공장설립 증액투자	10	5
A사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	30	10
D사	Data Centers 설립	1000	10
O사	생산공장 설립	50	5
M사	한국법인 설립	30	10
	합 계	1,120	40

2) 캐나다

○ 대한투자동향

- 캐나다의 대한투자 신고액은 연간 약1.4억불(5년 평균) 수준으로 한국 전체에서 캐나다의 대한투자 비중은 약1.3% 비중. '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금액이 늘어나는 추세
- 캐나다 서부 지역은 투자여력을 갖춘 기업 수가 적으며 관심투자지역을 북미로 두고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는 경우가 많아 투자유치 대상 기업이 제한적인 실정이지만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으로 인해 밴쿠버 소재 올림픽 관련 시설, 인프라,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토론토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용인 경전철사업 개발 투자프로젝트	100	10
O사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50	15
B사	JDC 내 외국인학교 설립	20	10
O사	M&A 프로젝트	150	50
S사	국내 engineering 회사 인수	50	30
S사	오버홀링 서비스 센터 설립	40	10
W사	제조시설 단독투자 프로젝트	10	5
P사	국내 물처리시설 투자 JV	10	3
A사	국내 호텔체인 투자프로젝트	100	40
U사	국내 냉난방 환기 공장 투자	150	40
	합계	680	213

(밴쿠버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E사	글로벌 교육 타운 설립	300	20
M사	인터넷폰 제조기업 재무투자	100	20
S사	선박용 핵심부품 제조시설	85	25
M사	FEZ 내 교육기관 설립	55	20
A사	터치모듈 제조기업 재무투자	50	20
S사	산업용 건조공장 설립	15	15
	합 계	605	120

□ 유럽

1) 독일

○ 대한투자동향

- 독일의 대한투자는 매년 평균 5억불 내외에 이르며 주요 투자업종은 주로 고도기술을 수반한 제조업(Green-field)으로 국내 경제에 순효과 발생
- 한-EU FTA 체결로 한국산 부품구매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간 거래 확대에 따른 독일 부품기업의 M&A 및 JV 관심도 증가
- 업종별로는 독일 주요화학 기업의 성장동력인 아시아 시장의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동산업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프랑크푸르트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고기능 플라스틱 수지	120	60
B사	디젤연료 분사 시스템	150	90
S사	인메모리 클라우드 R&D	10	5
B사	자동차용 모터 JV	60	30
	합 계	340	185

(함부르크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 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K사	한국내 풍력관련 R&D센터 설치 및 전남해상풍력프로젝트 JV	65	65

(뮌헨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 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L사	질산 가스 생산 공장	200	200
L사	자동차 케이블 제조업체 주식 매입	80	40
J사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 설립	8	3
	합 계	288	243

2) 영국

○ 대한투자동향

- 영국은 '08년~'11.11.30일까지 누적 투자신고금액으로 대한투자 4위 국가로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4년간 평균 11.4억불이 신고됨
- 영국의 경우 그간 금융과 유통업 등 서비스업에서 대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2년에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형투자계획이 없어 대한투자는 금년도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투자가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T사	신규점포 및 물류센터 건립	300	200
M사	중소테마파크 건립	50	20
A사	파트너사 지분인수	30	30
G사	분말야금공장 건설	50	50
S사	신용카드사 인수	200	100
	합 계	620	400

3) 프랑스

○ 대한투자동향

- 프랑스의 대한투자는 지난 5년간 평균 2.8억불이 신고되었음
- 유럽재정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축재정 조치에 따라 '12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0.6% 수준으로 당초 예상(2%)에 크게 못 미칠 전망으로 기업의 투자는 전반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별 대한 투자유망분야는 보험, 항공기 및 자동차, 유통분야로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D사	스포츠용품 유통매장 설립	대외비	100
L사	한류월드 테마파크 설립	200	100
R사	농산물 추출 화학물질 생산	80	80
R사	실리카 제조공장 설립	50	50
F사	자동차부품 합작 공장 설립	10	10
	합 계	340+	340

4) 네덜란드

○ 대한투자동향

- 네덜란드의 경우 투자금액으로는 상위 대한투자국이나 금액기준으로 90% 이상의 투자가 조세협약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를 통한 非네덜란드 업체의 우회투자로 네덜란드 자체의 투자성향과 무관하게 세계 경기 흐름을 반영하게 됨
-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의 위험회피 성향이 두드러지면서 지리적, 심리적 거리가 있는 한국으로의 투자는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직접투자보다는 contract/licensing을 통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O사	울산신항 터미널 확장	57	57
I사	Marine Service 업체 인수	30	30
T사	풍력 Blade 제조공장설립	80	80
	합 계	167	167

5) 이탈리아

○ 대한투자동향

- 이탈리아는 '12년 실질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경우 해외 신흥시장 선점 등으로 이탈리아 내수시장에서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경향
- '11년 11월 21일에 개최된 한-이 경제포럼에서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는 향후 최대 35억 유로 규모의 한국 투자계획을 구상하여 한국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이탈리아 내부적 경제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계되기에는 시기가 걸릴 것으로 예상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U사	KUT 공장 확장	20	5
A사	ARNEG 공장 증설	6	1
	합 계	26	6

6) 스페인

○ 대한투자동향

- 스페인의 대한 투자는 '09년 정점을 기록한 후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최근 2년간 급감함. '11년 1~3분기 투자규모는 2,622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
- 업종별로는 운송용기계 제조, 전기/가스, 도소매 등과 같은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페인 의류브랜드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제강기업 합작투자 및 공장 설립	100	50
I사	의류유통	20	20
G사	전기차, 풍력관련 기업 투자	10	10
G사	자동차부품 공장 설립	10	10
	합 계	140	90

7) 스웨덴

○ 대한투자동향

- 스웨덴의 대한 투자는 '08년 21,273만불의 투자신고 실적을 정점으로 계속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웨덴의 대한국 투자는 '06년-'09년간 활발히 이루어진 관계로 대부분의 스웨덴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 투자진출한 상황임. 최근 스웨덴 기업의 대한 신규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대신 기존 투자자의 동종분야 한국 중소기업 인수나 증액투자 형태 양상이 증가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명	총 프로젝트 규모 (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I사	가구유통매장 설립	1,000	200
S사	자동차 서비스 센터 설치	30	30
S사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건립	50	10
A사	기업 인수	10	10
E사	LTE 설비 투자	10	10
	합 계	1,100	260

8) 덴마크

○ 대한투자동향

- 우리나라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생명공학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덴마크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투자 협력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덴마크 기업의 대한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덴마크 기업들은 한국 시장 뿐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관심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V사	전남풍력단지 내 공장설립	50	50
L사	테마파크 건설	100	100
	합 계	150	150

9) 벨기에

○ 대한투자동향

- 벨기에의 대한 투자는 '08년부터 '11년까지 연평균 65백만불
- 업종별 유망 투자분야는 바이오/의료, 항공정비, 물류, 식품산업 분야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MDI 생산공장 증설	35	35
T사	건설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인수	35	35
U사	3차공장 증설	65	20
S사	R&D센터설립	17	5
UC사	신약물질개발 R&D센터건립	10	10
	합계	162	105

10) 스위스

○ 대한투자동향

- 유럽 재정위기,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스위스의 해외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대한 투자 또한 대폭적인 감소가 우려됨. 스위스는 '06년 이후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예외적인 대규모 투자를 제외하면 대한 투자금액은 약 3천만불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형태는 기존 글로벌 기업의 증액투자과 최근 M&A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R사	부품제조 및 R&D 센터 설립	100	5
R사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20	3
S사	PE 투자	10	-
C사	대한 투자	50	10
K사	국내기업 인수	30	10
S사	국내기업 인수	10	10
S사	국내기업 인수	10	2
N사	R&D 센터 설립	10	10
	합 계	240	50

11) 오스트리아

○ 대한투자동향

- 오스트리아의 대한 투자 규모는 '08년 이후 연간 25~40백만불을 지속적으로 유지.
- 투자형태는 주로 제조기업이 한국시장을 겨냥한 생산시설 투자(합작, 단독), 마케팅&AS 법인 설립 등이며,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IT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의 기업이 비교적 대한투자에 관심이 높은 편임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E사	플라스틱성형기계공장 증설	10	5
R사	음료유통 및 마케팅 법인 설립	20	5
P사	고성능 복합소재 생산공장 설립	10	3
	합 계	40	13

□ 아시아·대양주

1) 일본

○ 대한투자동향

- 일본기업들은 엔고, 전력난, 노동시장의 경성화, 환경규제, 높은 법인세율, FTA 지연 등 6중고에 어려워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일본 내수시장은 향후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해외 진출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도 생존을 위해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

- '11년 3분기까지의 대한투자금액은 16억불(순유출 기준)로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 최근 일본은 대지진과 태국에서의 홍수피해로 국가리스크에 대해 자각하면서 위험분산의 대안으로 안전한 한국을 고려하는 분위기
- 대한투자는 한국문화 및 상품에 열광하는 한류붐, 일본과 기업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안심감, 적극적인 FTA 정책 전개로 인한 친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고 있음
- 투자분야는 대규모 석유화학분야, 전기전자 관련 부품소재분야, 서비스업 등이 주 투자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도쿄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에상금액(백만불)
T사	알루미늄 코일공장 설립	100	100
M사	금융관련 현지법인 설립	50	50
N사	셀룰로우스 유도체 제조 공장	30	30
M사	침상코크스 제조	200	100
T사	등방성 흑연 합작제조	100	30
N사	국내 화학기업 인수	20	20
U사	카지노리조트 건설	400	150
	합 계	900	480

(오사카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N사	LCD 글라스 용광로 공장 증설	200	200
D사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	30	15
S사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 신설	10	10
T사	국내 화학단지 입주	10	5
	합 계	250	230

(나고야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D사	자동차부품 R&D센터 설립	83	20
I사	탄소소재 생산공장 설립	150	50
Y사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설립	40	20
T사	자동차부품 생산공장 설립	46	10
T사	가스밸브 생산공장 설립	10	4
N사	공작기계 생산공장 설립	10	5
B사	유통업/대형슈퍼 설립	30	20
	합 계	369	129

(후쿠오카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Y사	풍력발전기	20	20

2) 중국

○ 대한투자동향

- 중국의 해외투자진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비해 대한투자 규모는 그 중 1%내외로 미미한 상황
- 1억원 내외의 소규모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연도별 투자규모는 대형 투자건 유무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임
-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력 있는 한국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개발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주요 프로젝트

(상해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G사	제주도 휴양레저시설 건설	1000	150
R사	제주도 리조트 개발	500	50
	합 계	1500	200

(베이징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H사	휴양형 레저단지 개발	400	50
D사	해상양식업 투자	100	50
	합 계	500	100

(광저우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C사	MidanCity 투자 (부동산개발)	300	30
K사	서울지역 법인설립 (소프트웨어개발)	10	10
C사	(PE, VC) 신에너지소재방면 투자	30	30
B사	현지법인 설립 (유전자, 생명공학)	10	10
	합 계	350	80

(칭다오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제주도 리조트개발	70	40
C사	부동산 종합개발	100	100
	합 계	170	25

3) 홍콩

○ 대한투자동향

- 홍콩은 전세계 기업의 자금관리센터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금의 출입이 일정치 않으며 대한투자 또한 매우 가변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의 특이치를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120백만불에서 160백만불 가량 신고
- 업종별로는 주요 투자분야는 금융분야로, 무역관이 관리하는 투자자들 대다수도 PE, 증권사 및 VC 등 금융기관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E사	국내 유망기업 지분 투자	100	40
G사	국내 유망기업 지분 투자	200	20
J사	국내 유망기업 지분 투자	50	25
S사	국내 유망기업 지분 투자	40	20
T사	국내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500	100
	합 계	890	205

4) 대만

○ 대한투자동향

- 대만기업의 대한 투자는 10~20만불 규모의 판매법인 설립이 대부분이며, 대규모 그린필드형 투자는 중국 및 동남아지역에 집중, R&D형 투자는 미국과 일본에 집중되고 있음
- * ECFA 체결의 영향으로 '10년 대만의 대중 투자 비중이 해외투자 총액의 83%를 초과
- '11. 9월 대만과 일본간 투자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간 쌍방향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IT전자 등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분야에서 대한 투자 감소가 우려됨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액 (백만불)
F사	부동산투자	100	-
A사	웨이퍼 테스트 공장설립	40	10
	합 계	140	10

5) 인도

○ 대한투자동향

- 인도의 대한투자 비중은 작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04년과 '11년에 대규모 인도 자동차 그룹의 한국 투자가 실행되기도 함
- '07년과 '08년은 한-인도 CEPA 협상이 본격 진행된 시기로, 향후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증대를 활용하기 위한 중소규모 도·소매(유통) 부문의 투자가 많이 진행됨
- 인도의 해외투자 동기, 주요 대한투자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제조업, M&A, 재정적 투자 방식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주요 프로젝트

투자가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M사	농기계 업체 인수/지분투자	40	20
M사	자동차 할부금융 자회사 설립	40	20
T사	벌크 매테리얼 핸들링분야 기술협력	10	5
T사	폴리머 생산공장 설립	20	10
G사	신재생에너지 합작투자	10	5
B사	일렉트릭얼 엔지니어링 합작투자	10	5
	합 계	130	65

6) 싱가포르

○ 대한투자동향

- 싱가포르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중 한국으로의 투자 비중은 미약하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임

- 업종별로는 유통, 물류 및 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10년 이후 제조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싱가포르를 재무본부로 삼고 있는 제조업분야의 다국적 기업에서 유입된 것
- '12년 주요 투자유치 분야인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물류 등 서비스 분야의 위축 등 싱가포르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투자유치 전망은 밝지 않은 편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M사	물류창고 인수 개발	500	100
T사	한국기업 지분투자	200	100
V사	한국기업 지분투자	10	5
P사	부산신항만 투자 확대	20	10
N사	물류창고 운영 투자	20	10
S사	마리나시설 개발	100	50
E사	제조공장 및 지역본부 이전	30	10
	합 계	880	285

7) 인도네시아

○ 대한투자동향

-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상 해외투자 여력은 크지 않으며 인도네시아의 대한투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3.3백만 불로 매우 미미한 수준

8) 말레이시아

○ 대한투자동향

- 말레이시아의 대한 투자는 매년 약 8천만불 내외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으며 이중 대부분도 조세회피지역 라부안 통계를 포함하고 있어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순수 투자건은 많이 많음
- 업종별로는 관광레저업종에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전기전자 업종에 한국의 우수한 기술 획득을 위한 지분인수에 관심이 많은 편임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B사	단지형 리조트 건설사업	500	50
S사	할랄 프랜차이즈, 호텔사업	10	10
	합 계	510	60

9) 호주

○ 대한투자동향

- 호주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사용국에 90%가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매우 낮음
- 업종별로는 금융, 부동산, 물류, 유통 등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의 취약으로 Green Field 투자는 미미
- 최근 호주기업들의 관심 분야는 IT, 바이오, 그린기술, 레저, 문화콘텐츠, 미디어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 향후 한-호 FTA 체결시 특히 금융,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대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 주요 프로젝트

(시드니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G사	아시아 물류허브센터 구축	100	20
I사	ATM 생산업체 지분 인수	40	25
B사	M&A를 통한 한국시장 확대	20	10
C사	보청기 제조시설 구축 및 관련기업 M&A	15	5
	합 계	175	60

(멜버른무역관)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D사	포스트프로덕션 인수	30	30
A사	소형 테마파크 개발	10	2
H사	바이오시밀러 R&D, 제조	10	-
C사	제약공장 설립	10	-
	합 계	60	32

□ 기타

1) 러시아

○ 대한투자동향

- 러시아의 대한 투자 규모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임. '89년 1건(20만 불)을 시작으로 11.30일 현재 누계기준으로 총 516건 (5419만불)임. 투자분야는 주로 도소매유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R사	신기술 개발 및 생산 투자 (나노분야)	350	350

2) 아랍에미레이트

○ 대한투자동향

- '09년 말 원전수주 등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가 크게 상승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아직 생소한 한국보다는 인근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 유럽, 서남아시아 등을 우선적인 투자처로 찾고 있음. 투자금액도 최근 3년간 평균 5백만불 내외로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산업다각화 추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기술력 있는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 직접투자 하기보다는 한국자본과 JV를 구성하여 아프리카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투자자	프로젝트 내용	총 프로젝트 규모(백만불)	2012년 투자예상금액(백만불)
A사	한국 부동산 투자	10	5

Ⅲ.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및 전략

1. 종합전망

-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국내 대기업의 생산기지 해외투자 증가 등 위협요인이 있으나, 미국경제의 회복조짐, 미·EU와의 FTA 체결, 엔고와 대지진 여파로 인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신흥자본국의 해외투자 확대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면 '11년과 유사한 수준 달성 전망
- (긍정요인) '12년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은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전망,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안정화, 다국적기업들의 경영성과 호조, 신흥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집중, 전세계 M&A 시장의 호조, 미·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추가유입,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등
 - '12년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일 전망. 전세계 거시경제도 금융위기 이후 안정화되어 가고 해외직접투자의 주축인 다국적기업들의 미시적인 경영성과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함
 -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신흥국 중 특히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지역으로의 유입이 활발. 전세계 M&A시장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M&A 시장이 '12년에 매우 활발할 것으로 전망
 - 한-EU FTA,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로 미·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이 개방되는 서비스분야의 투자도 개방단계에 맞추어 점진적 증가가 예상됨

- 대지진, 엔고 등으로 생산거점 해외이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해외 M&A를 확대, 한-EU 및 한-미 FTA 체결효과가 가시화되면 한국으로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
- (위협요인)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경기회복 부진, 주요국가의 '12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이 회복하려는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음. 국내요인으로는 12.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안보 및 정치상황의 추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유럽정상회의에서 신재정협약체결 등 진전이 있었지만 위기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고, 미국의 국가부채와 더딘 경제회복 등의 선진국발 위협요인 및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등이 상존하고 있어 전세계 경제 및 해외직접투자는 불안정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전반적으로 '12년의 경제성장률을 '11년에 비해 낮게 전망하고 있어 세계경기는 다소 침체되어 외국인직접투자도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세계 거시경제지표는 다국적기업들의 향후 투자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연구됨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생산기지이전도 중요한 변수로서 삼성,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생산기지 가속화로 향후 부품·소재분야의 외국인투자도 타격을 받을 전망.
- * '11년 1월~9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36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1% 증가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김정일 사망에 따라 금융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은 높아지겠으나, 북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지 않는다면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Moody's 등 신용평가 3사는 동 사태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
 - 북한은 '94년 김일성 사망 시와 같이 금번 김정일 사망을 체제결속의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며 '12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승하게 될 것(Nomura)
 - 일부 투자가의 경우, 불확실성이 증대될 경우 투자보류 또는 투자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으나, 대부분 접촉한 투자가는 김정일 사망이 한국과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다는 반응
- * 김일성 사망('94.7.8)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 '93년(10억 달러) 대비 '94년 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증가
- * 천안함 사건('10.3.26) 전후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 '09년(114억 달러) 대비 '10년(13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

2. 우리나라의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 고용창출 및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유치 강화

- 외국인투자 유치를 고용창출, 고도기술 확보, 지역개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중점을 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이를 공고히 추진
 -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품·소재분야와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보험, 물류·운송, 관광레저 등 서비스분야 투자유치 집중
 - 글로벌 기업의 Open Innovation 전략을 활용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글로벌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해외시장 마케팅 등 다중협력 투자지원 프로그램 확대

□ FTA 네트워크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

- 거대 경제권인 EU와 미국과의 FTA를 활용하여 동 지역 기업들로부터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필요
- EU, 미국과 한국의 아시아 네트워크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본부 및 R&D센터 등의 설립유인을 초기에 발굴하여 투자유치로 연결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서비스부문에서 투자유치를 강화
- EU 및 미국제품의 관세면제로 수출가격경쟁력이 낮아지는 일본 등의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대한 유인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일본기업의 최근 해외진출 수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부품소재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

- 일본은 '11년 대지진, 원전피해, 전력문제, 엔고 등의 요인으로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중 대한 유치 적합 업종 및 기업들을 타겟으로 투자유치 활동 필요
 - 화학업종, 자동차, 정밀기계 등의 업종에서 해외진출 수요가 많음
 -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아시아국가 진출 수요가 많은 만큼 국내 수요처가 있으며 고도기술을 수반한 업종, 금융업종 기업과 FTA를 활용하려는 일본기업 발굴이 중요
- 일본은 엔고와 풍부한 자금을 앞세워 글로벌 M&A 3위로 도약한 만큼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일본자본도 적극적으로 유치

□ M&A 활성화 및 대규모 펀드 활용

- '12년에는 전세계 M&A 투자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머니투데이, 11.12.7)
- M&A 물결(Merger Wave)이라고도 할 만큼 기업의 순현금흐름이 좋
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클 것으로 전망
- 다만 유럽 재정위기로 4분기 글로벌 M&A 시장이 급락했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세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M&A는 활
발해질 전망
- 이러한 M&A붐을 외국인투자유치에 충분히 활용하려는 분위기 조성
과 해외기업들로부터 M&A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
- 한국은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는 선호하면서 M&A형태나 해외
사모펀드, 국부펀드로부터의 투자는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어 글로벌
자본의 다양한 금융적 툴을 활용해 적절한 기업매각과 기업가치를
키워나가는 발상의 전환과 발빠른 대응이 요구됨

□ 신흥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집중 추세를 활용하여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 신흥국가의 다국적기업 및 대규모자본이 신흥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의 주요 원천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선진국 위주의 투자유치활동
도 강화하면서 아시아 및 중동, 러시아, 남미 등의 신흥 국가들로부터
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다각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한
국을 투자대상국 후보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바, 고도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들을 집중 유치하고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야 함

< 참 고 자 료 >

- KOTRA, “2011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2010. 12
- KOTRA, “한-EU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2011. 1
- KOTRA, “미·EU FTA의 FDI 촉진 효과와 투자유치 유망분야 분석보고서”, 2011. 1
- 삼성경제연구소,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2011. 9
- 기획재정부, “2012년 경제전망”, 2011. 12
- 한국은행,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과 향후 전망”, 2011. 7
-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 2011. 10
-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11. 5/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1. 9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11*, New York and Geneva: United Nations, 2011.7.
-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2011. 10. 18
- TheCityUK, *Private Equity*, 2011. 8
- TheCityUK, *Sovereign Wealth Funds*, 2011. 4
- 언론기사
 - “일, 글로벌 M&A 톱3로 떠올라”, 서울경제, 2011.5.15, A10면
 - “쌀 때 사자, 중, 해외기업 싹쓸이 쇼핑”, 해럴드경제, 2011. 12. 14, 9면
 - “내년 전세계 깜짝 놀랄 M&A붐 온다”, 머니투데이, 2011.12.7, 27면
 - “일 제조업체 해외로 해외로”, 세계일보, 2011.12.6, 8면
 - “아 M&A 시장 제2의 전성기”, 아주경제, 2011.11.22, 2면
 - “외인 투자 늘고 서비스업 체질강화 계기”, 2011.11.25, 5면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터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韩国投資指南と企业经营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1	‘10년 해외주요국 투자동향	2011.5
11-022	韓国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経営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신규 외투기업을 위한 노동법 가이드	2011.7
11-032	Labor Law Guide for Start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11-036	그린리포트(Vol 12, 2011 Summer)	2011.8
11-037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8
11-038	일본 자동차 부품 MAP	2011.8
11-039	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1.9
11-040	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	2011.9
11-0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10
11-042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0
11-043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10
11-044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스마트 디바이스	2011.10
11-045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로봇	2011.10
11-046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디지털방송	2011.10
11-047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시스템반도체	2011.10
11-048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3D	2011.10
11-049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Telematics	2011.10
11-050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RFID	2011.10
11-051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Security	2011.10
11-052	2012 해외진출종합가이드	2011.10
11-053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10
11-054	2011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1.11
11-055	국제개발은행 시장진출 안내	2011.11
11-056	그린리포트(Vol 13, 2011 Autumn)	2011.11
11-057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
11-058	아프리카의 슈퍼스타 국가를 주목하라	2011.11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59	CIS 미래 (태양전지, 의료기기, 지능형 교통체계) 시장을 잡아라	2011.11
11-060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	2011.12
11-061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미국, 중국)	2011.12
11-062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UAE, 러시아, 카자흐스탄)	2011.12
11-063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일본, 중국, 독일)	2011.12
11-064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미국, 태국)	2011.12
11-065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이러닝 (미국, 중국)	2011.12
11-066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엔지니어링 (중국, 베트남)	2011.12
11-067	주요 8개국 해외투자상당사례집	2011.12
11-068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2011.12
11-069	그린 리포트 2011 Winter	2011.12
11-070	일본 소비재 유통 MAP	2011.12
11-071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개정판)	2011.12
11-072	2011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1.12

KOTRA 자료 11-068

2012년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발 행 인 | 오영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2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한 KOTRA의 발걸음

윤리경영 | 고객의 신뢰와 함께 하는 책임경영

KOTRA는 국내 본사 및 전 세계 76개국에 뻗어 나가 있는 11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항상 책임을 다하는 Global Citizen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의 Global Standard를 실현하기 위해 KOTRA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 실천규정을 준수하고 청렴도 조사 등을 통해 지침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및 국제 사회공헌 | The world in Korea, Korea in the world

해외무역관을 갖고 있는 KOTRA의 특성을 살려서 전세계 각 주재국의 특성에 맞는 CSR 활동을 전개합니다. 일본 대지진시에는 피해지역에 구호물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아이티 지진시에는 구호단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자폐아, 고아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이들을 상대로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사회에도 1사 1촌 활동, Adopt-A-Road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확충과 한국문화 전파에 기여함으로써 세계 속의 당당한 한국을 만들어 나갑니다.

녹색경영 | Clean KOTRA, Green KOTRA

KOTRA는 친환경제품 구매 및 녹색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린포럼, Green Hub Korea 2011, 녹색산업 협력포럼 등을 개최하여 국내 기업에게 녹색분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증대하여 녹색산업분야의 성장을 촉진 하고 있습니다.